게라: 철과 강철 덩어리

다타라 제철의 직접 제련법을 이용하면 게라라고 불리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큰 철 덩어리가 생성됩니다. 3 일간 연속으로 조업을 실시한 후, 용광로를 부수고 생성된 게라를 꺼내어 냉각합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게라는 1992 년에 닛토호 다타라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닛토호 다타라로 제련되는 게라는 평균적으로 무게 3.2t, 길이 300cm, 폭 125cm, 높이는 25~30cm 에 이릅니다. 게라의 약 70%는 일본도 제작에 필수적인 고품질의 옥강(玉鋼, 다마하가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나머지의 30%는 질이 낮은 강철(부게라)이나 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타라 제철이 성행하면서 이곳에서 생산된 철이나 강철이 일본 전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질이 낮은 금속은 정련을 거친 후에 판매되었습니다. 지금은 추후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게라를 비축만 하고 있습니다.